

2016. 6. 27.[월] 조간 언론보도 스크랩

朝鮮日報

2016년 06월 27일 (월)
16면 전국

DMZ 접경 세 번째 게스트하우스

경기도가 DMZ(비무장지대) 접경 지역을 잇는 걷기 코스인 '평화누리길'의 세 번째 게스트 하우스를 지난 23일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문화복지회관에 열었다. 연천 게스트 하우스는 군남홍수조절지에서 신탄리역에 이르는 평화누리길 12코스 '통일이음길' (24km)을 찾는 사람들에게 숙박을 제공한다. 15명까지 투숙이 가능하다. 하루 숙박비는 한 사람에 1만원으로, 이용 문의는 전화 (031)839-2148로 하면 된다.

연천=권상은 기자

5.6 X 6.4 cm

기호일보

2016년 06월 27일 (월)
03A면 종합

DMZ 가치 '영상'으로 알려요

도-관광공, 프렌즈 3기 대상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교육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오는 30일 오후 5시 고양꽃전시관에서 DMZ 홍보단 'DMZ 프렌즈 3기' 단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 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원들의 효과적인 DMZ 홍보를 위해 시청각 자료 체험 및 전문가의 콘텐츠 제작 특강 과정으로 마련됐다.

우선 단원들은 이날 평화누리길을 비롯한 도의 주요 관광지에 대한 홍보 영상을 시청하며 기본적인 홍보영상 구성방법을 알아본다.

이어서 ㈜레드브릭스 김갑진 이사의 '스마트폰 앱으로 쉽고 재미

있는 영상 만들기' 특강을 통해 사진을 활용한 영상제작 기법,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기법 등을 배울 예정이다. 또 발대 후 단원들의 미션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진행할 미션을 안내 받는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DMZ가 지닌 가치와 의미를 대중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DMZ의 숨은 가치를 알릴 수 있는 프렌즈 단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DMZ 프렌즈'는 2014년 대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후 지난해부터 폭넓은 세대 공감을 위해 일반인까지 참여대상을 확대해 운영해 왔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9.9 X 11.5 cm

